

# 공급사슬관리의 디지털 혁신과 신기술 적용 사례 분석

## Digital Transformation and Technology Adoption in Supply Chain Management: Case Studies and Trends

김형준<sup>1</sup>

<sup>1</sup>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20192208

**Abstract** 본 보고서는 공급사슬관리(SCM)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주요 신기술(IoT, AI/ML, RPA,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의 적용 효과를 개관한다. 선행연구와 공개 사례를 바탕으로 가시성 증대,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운영 자동화, 리스크 완화,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의 핵심 가치를 정리한다. 아울러 유통·제조·물류 분야의 대표 사례를 통해 기술-프로세스-조직 정렬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도입 장벽(데이터 표준화 미흡, 레거시 통합 난제, 보안/프라이버시, 변화관리 등)과 실천적 도입 전략(로드맵 수립, PoC→확장,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 구축)을 제시한다. 본 분석은 향후 SCM의 자율화·지능화로의 이행과 생태계 수준의 협업 강화를 전망하며, 단계적 접근이 성과 극대화에 유효함을 시사한다.

**Keywords** : SCM, Digital Transformation, IoT, AI/ML, Blockchain, RPA, Digital Twin, Cloud, Data Analytics, Supply Chain Visibility, Smart Factory

### 1 서론

- 목적: 공급사슬관리(SCM)에서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신기술 적용 효과를 개관하고, 실무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 범위: 유통/제조/물류 전반, 기술은 IoT, AI/ML, RPA,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 방법: 선행연구 검토와 공개 사례 분석을 통해 가치-장벽-전략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 구성: 핵심 가치와 효과 → 적용 사례 → 도입 장벽 → 도입 전략 → 전망 → 결론의 순서로 기술한다.

### 2 핵심 가치 및 효과

- 가시성 강화: 실시간 재고/물류 상태 추적, 예외 상황 조기 탐지.
- 수요예측 고도화: 시계열+외생변수 결합 ML 모델로 예측 오차 축소.
- 운영 자동화: RPA와 최적화로 발주/배차/스케줄 자동 의사결정.
- 리스크 완화: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으로 시나리오 기반 복원력 확보.
- 비용/서비스 동시 개선: 생산성 향상, 리드타임 단축, OTIF 개선.

### 3 적용 사례

- 유통: 재고 가시성 플랫폼과 AI 수요예측을 결합해 재고회전을 개선, 프로모션/계절성 반영으로 품질을 감소.
- 제조: 예지보전과 공정 최적화로 설비 가동률(OEE) 향상, 디지털 트윈으로 라인 변경 시 리스크 사전 검증.
- 물류: IoT 센서 기반 콜드체인 모니터링으로 택배/식품 품질 유지, 동적 라우팅으로 운송비 절감.
- 협업: 블록체인 기반 거래/추적성 관리로 원산지 증명과 분쟁 비용 축소, 스마트컨트랙트로 정산 자동화.

### 4 도입 장벽

- 데이터 표준화 미흡: 시스템·사업부별 데이터 스키마 불일치, 품질 편차.
- 레거시 통합 난제: ERP/WMS/MES 등 이기종 시스템 연계 복잡성, 인터페이스 부재.
- 보안/프라이버시: 파트너 간 데이터 공유에 따른 접근통제·암호화·익명화 이슈.
- 변화관리: 현업 프로세스 변화 저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성숙도 부족.

-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 PoC-현업 확대 간 단절, ROI 산정의 난해함.

### 5 도입 전략

- 로드맵 수립: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우선순위 정의(가시성→예측→자동화 단계적 확대).
- PoC→확장: 제한된 범위(라인/상품군/거점)에서 검증 후 스케일업, 성과 KPI를 명확히.
-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화(마스터/코드),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접근권한 체계 정립.
- 통합 아키텍처: API 중심 통합, 이벤트 기반 스트리밍, 데이터 레이크/웨어하우스 병행.
- 역량 구축: 크로스펑셔널 태스크포스, 현업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 운영/보안 체계 마련.

### 6 전망

- 자율화로의 이행: 수요-공급 조정과 예외 처리의 자동화 비중 확대, 인간은 감독·전략에 집중.
- 생태계 협업: 파트너 간 데이터 연동이 표준화되며, 플랫폼형 거래·물류 연계가 강화.
- 지속가능성 연계: 탄소 데이터 통합과 규제 대응(ESG/CSRD) 지원 도구의 보편화.
- 프라이버시·보안 고도화: 차등프라이버시·동형암호·연합학습 등의 실무 도입 확대.

### 7 결론

본 보고서는 SCM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핵심 가치(가시성, 예측, 자동화, 복원력)와 주요 기술(IoT, AI/ML, RPA,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의 적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도입의 성패는 기술 선택 그 자체보다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아키텍처, 변화관리 등 조직적 준비도에 좌우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한된 PoC로 성과를 검증한 뒤 표준화·자동화 기반을 확립하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향후에는 자율화와 생태계 협업이 경쟁 우위를 좌우할 것이며, 보안과 프라이버시,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합하는 실행역량이 핵심이 될 것이다.